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정호



정부나 회사나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체는 좋은 정체성(Identity)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하고 회사가 돈 잘 벌면 되지 무슨 정체성이 필요하나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의 조직체 경영에 있어 정체성은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청조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조직은 저마다의 역사와 개성과 문화가 있기 마련이며 이를 반죽시킨 것이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없으면 조직은 오래가지 못하고 힘을 극대화시키기 힘들다.

조직체 정체성의 전문가인 로렌스 애커먼은 좋은 조직체의 정체성을 위한 7가지 조건을 설명한다. 첫째는 실존성이다. 조직체는 마치 사람 같아서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나름대로의 조직의 존재가치를 추구해야 이 문제를 풀린다. 둘째는 개별성이다. 다른 조직체와 달리마다 한다. 사람도 모두 다르듯이 조직도 자기 만의 특색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일관성이다. 창업이나 출범 때부터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조직체가 변해도 면면히 이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이 되어야 한다. 조직체가 좋은 정체성을 가지면 아래, 위, 옆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만나는 마지막은 이해성이 있다. 조직체의 정체성이 남에게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체성도 너무 복잡하거나 어매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실패한다.

정부의 정체성의 장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의 리더십은 바로 정체성의 발현이다. 대통령이 행하는 인사, 이벤트, 사업, 발언, 정책, 대화 모든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타난다. 좋은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그려낸 것들이 하나의 궤를 가지는 것이다. 실용정부는 광활한 이름이다. 대통령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

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체성으로 그 정부의 이름을 불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용정부는 광활한 이름이다. 대통령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

실용주의의 철학은 이념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부터의 탈피를 강조하고 실제(practice)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존우의 실용주의(pragmatism) 노선을 따르는 것인데 실용정부는 이러한 정신을 높이 사는 것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실용정부에서 말하는 실용은 스타일이지

정체성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실용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통치의 정체성을 실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실용이라는 축으로 지금과 미래의 사업과 정책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MB정부의 정체성은 차라리 녹색성장정부로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비록 외교나 국방, 안보분야에서 설명력이 떨어지나 사업과 정책의 중점을 환경과 인간을 강조하는 적극성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실용정부보다는 훨씬 나은 정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다면 녹색성장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더 이상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서민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와 과학기술에 바탕한 환경주의, “나는 한국적 녹색성장의 주춧돌을 놓는 사람”이라는 개인적 정체성이 “실용주의 정부의 책임자”보다 더 낫다고 본다.

이제 집권 2년이 되어 가는 마당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실용주의 정부는 MB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을 명명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하다. 대통령의 머리와 마음속에 자신 있게 형성한 정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 정체성이 성공적인 것이라면 이 정부가 끝날 때쯤 멋있는 이름을 언론들이 붙여줄 것이다. 현재까지 내 놓은 것으로는 ‘녹색성장정부’가 제일 좋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조철웅



신체 중에서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눈이다. 우리의 눈은 눈동자를 넓게 넓고 있는 눈물증이 유행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을 부드럽게 떴다 감았다 할 수 있다. 쌀쌀하고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 날씨에는 공기 중의 습도가 부족해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눈도 마르게 해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에 모래알이 구르는

집이나 사무실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올려줘야 한다. 실내온도 대비 습도는 보통 18~20도에서는 60%가 적당하다. 대표적인 방법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면 집안 전체에 고루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다. 빨래할 때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헹구면 건조되면서 집안에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더 잘 마르는 효과가 있다. 사워 후 육식 문을 열어 놓거나 실내에 속을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

건조한 겨울 ‘눈’ 관리

듯한 이불감, 비눗물이 들어간 듯한 작열감, 가려움, 빡빡함, 안구 피로 증상을 보인다. 주로 건조한 환경이나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증상이 악화되고 눈을 오래 사용할수록 오히려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는 눈물샘의 위축, 지방층을 만드는 샘의 장애, 통로의 막힘 등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샘에서 분비하는 눈물의 양이 줄어들어 안구를 보호하는 유행유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다. 40세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며 남자보다는 여자,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서 흔하다. 이 밖에 비타민A의 결핍이나 약물의 오용, 눈가의 염증, 만성 결막염, 눈꺼풀 이상 및 전신 질환과 연관돼 나타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 콘택트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는 사람, 라식이나 라세 수술을 한 사람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 및 예방법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밤에 눈이 침침하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을 찔질해줄 수 있다. MP3, PMP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책, 영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모니터에 집중하면서 눈 깜박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책이나 모니터에 집중하면 눈 깜박임이 무의식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보는 시선을 조금 낮게 해주면 눈꺼풀이 눈을 덮어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언가를 장시간 동안 집중해서 볼 경우, 50분을 집중해서 봤다면 5~10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여주는 등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연어, 참치, 고등어 등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준다. 오메가3 지방산은 안구표면의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등푸른 생선 혹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눈 미름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눈 질병을 막아주고 병의 진행속도를 늦춘다.

〈밝은광주안과 원장〉

더딘 경제회복…고달퍼지는 서민들의 삶

이웃집에는 환갑을 앞두고 병원 청소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다. 작년까지 몸이 아파서 스스로 일을 그만뒀지만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사장을 해서 계약직으로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신다.

그런데 매월 전에 아주머니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고 이불을 덮고 꿩끙 앓아 누워다는 것이다. 아주씨는 아주머니더러 당장 일을 그만두라며 매일같이 상화지기를 기다려본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뿐이다. 당장 큰아들의 결혼이 걱정이신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 조그만 회사에 취업도 했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 고민하는 것 같다며 말을 아끼셨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아주머니는 아들이 장가를 가버리면 부모의 생계가 걱정되니 장가 얘기할 안 꺼내는 것 같다고 했다. 현 정권은 서민과 노인분들의 이런 생활 고충을 알고나 있는지, 하루빨리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다려본다.

하지만 아이가 사용한 단어는 ‘디지털’, 고화질, 일본, 여친, 사진” 등 음란성과 관련 없는 듯한 것인데도 수많은 음란 파일이 검색됐다. 파일을 업로드할 때 금칙어가 아닌 이런 단어들로 파일명을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이런 사이트나 금칙어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문제는 부모의 서운 실력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프로그램에서 서로 쉽게 걸려지고 막을 수 있도록 안심할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한다.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오피니언

시설

국회, ‘민생 예산’부터 서둘러 처리하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산안 처리 시

한인 2일 현재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전체 16개 중 6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회 예결특위가 법정 처리시한 전까지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1990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어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연속 7년째다. 한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습관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절저한 예산 심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다. 어떠한 이유로도 예산안의 출석 처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아직 경제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경제를 다시 움츠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산

통과가 늦어지게 되면 당장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종료되면서 동절기 고용한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쓸 돈이 없다. 내년부터 100만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역시 대학 등록기간 내년 초 시행을 위해서는 8천800억원이 넘는 소요 자금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1만 8천명에서 내년 3만7천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사업도 예산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

힘없는 서민들이 정치권의 극한 대립

으로 혹독한 겨울을 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민생 예산이라도 여야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잇단 가정불화 참극 두고만 볼 건가

가정불화 및 생활고 등으로 일가족이 동반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정불화에 대한 예방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성 개방 풍조의 확산과 경제적 불안, 다문화 가정 급증 등 가정 불화·폭력 요인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한 참극은 들어서만 3건에 달한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30대 가장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부인과 아들·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해남에서 40대 부부가 빗문재로 갈등을 빚다가 아들과 동반자살했으며, 2월에는 광산에서 20대 가장이 외도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차를 몰아온 사건이 있다.

문제는 자식은 자기와는 다른 귀한 생명인데도 자신과 동일시해 동반자살이나 살해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들이 자식은 내 생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매우 이기적인 복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가정불화에 대한 예방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성 개방 풍조의 확산과 경제적 불안, 다문화 가정 급증 등 가정 불화·폭력 요인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정불화가 생기면 누구라도 쉽게 찾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가정불화나 폭력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가정불화로 인한 참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통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無等鼓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Teiresias)는 본래 장님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숲길을 산책하다 못 볼 것을 본 게 학근이었다.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정신없이 보게 됐는데, 하필 그게 저히의 여신 아테네였다. 화가 난 여신은 단번에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대신 그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줬다고 신하는 전한다. 그는 테베에 정착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 죽어서도 예지력이 대단했는지,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찾아가 그의 맘령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물었을 정도다.

이런 식이라면 예측 전문가라는 직업은 사라졌어야 좋다. 하지만, 아직도 성업 중이고 연봉도 꽤 높다. 틀린 예측에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덕분이다. 정부만 해도 다음해 예산을 세울 때 성장을 전망 치를 근거로 주가 세우와 지출을 결정하고, 기업도 예상 매출을 근거로 예산을 책

정한다. 최근 국내 싱크탱크들이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각 기관의 예측치가 1년 사이에 4~6% 포인트나 변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을 아파해 내신의 목욕탕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다는 조사도 있다.

최근 국내 싱크탱크들이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각 기관의 예측치가 1년 사이에 4~6% 포인트나 변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을 아파해 내신의 목욕탕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다는 조사도 있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경기전망 무용론

경기 전망	무용론
최근 국내 싱크탱크들이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으나 각 기관의 예측치가 1년 사이에 4~6% 포인트나 변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을 아파해 내신의 목욕탕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다는 조사도 있다.
예측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전망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을 아파해 내신의 목욕탕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다는 조사도 있다.
예측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전망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을 아파해 내신의 목욕탕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다는 조사도 있다.
예측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 전망을 전망하면서 전망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예측 전문가들을 아파해 내신의 목욕탕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하다는 조사도 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